

새크라멘토

오뚜기처럼 일어난 “김치”

강도폭행으로 신체불구자된 수잔 김씨, 영문 요리책 발간 3백여 각종 한국음식, 서양인의 식성에 맞게 소개

수잔 김(55)씨는 87년도 발레오市内 식품점 운영당시 당한 강도폭행으로 뇌를 크게 손상, 기억상실과 왼쪽팔의 마비상태를 가져오는 역경을 겪고도 이를 회복하려는 불굴의 노력속에서 마침내 「Lawfat Korean Cooking」 영문 요리책을 최근 발간했다.

새로운 삶의 출발을 위해 5년전 아번市로 이주한 김씨는 뇌기능의 빠른 회복을 위해 아번의 GED Preparation 성인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과정을 지난 4년간 공부, 곧 졸업을 하게 되며 졸업후에는 대학에 진학하여 비즈니스를 전공할 계획이다.

「Lawfat Korean Cooking」의 저술과 발간은 한국인 2세, 3세대도 한국음식에 관심이 있는 미국인들이 한국음식을 만들어 먹고 싶은데 이들의 구미에 맞는 한국음식 소개책자가



▲수잔 김씨

제대로 없음을 알게 되면서 발단됐다. 특히 지방질을 피하는 이곳 식생활에 저지방의 한국음식이 환영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도 한몫을 했다.

김씨는 특히 음식솜씨가 뛰어난 한국의 언니 김기분(63)씨에게서 음식만들기를 배우기

시작, 음식만들기에 관심을 갖고부터는 어디서 새로운 음식을 맛보면 집에돌아와 그 음식을 자신이 실제로 만들어 보는 것이 습관이 됐다. 지난 몇년동안은 음식을 만든후에 꼭 교회나 미국인들의 모임장소에 가지고 가서 시식시키고 평가를 받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김씨가 이번에 한국요리책을 발간하기까지는 김씨 자신의 굴하지 않는 의지와 노력뒤에 한국의 언니 김기분씨의 경제적 지원이 김씨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했다.

김씨는 이 책판매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이 책이 비치된 새크라멘토 지역 책방들을 돌며 요리를 시식시키고 있는

데 오는 9월 8일 정오 아번市 「Longs Drugs」(Pho. 885-8783), 10월 14일 정오 새크라멘토 「Books INC.」(6109 Sunrise Blvd. Pho. 725-1200), 11월 18일 뉴캐설 「New & Hot So New Shop」(Pho. 663-3633) 등에서 요리시범이 계획되어 있다.

한국고유의 김치종류에서 사과오렌지차 등 음료, 스낵, 디저트에 이르기까지 3백종의 요리를 수록한 이 책의 표지는 김씨의 아들 토마스(23)군이 디자인, 정갈한 한국음식상과 함께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인쇄되어 있다. 책은 권당 24달러 99센터(전화주문: 916-823-8461)이다.

